

비셰그라드 그룹 30주년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 슬로바키아

30th Anniversary of Visegrad Group

Czechia

Hungary

Poland

Slovakia



The Prague Castle



The Royal Castle in Warsaw

Photo: M. Cieszewski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oland



The Brastislava Castle



The Buda Castle

바르샤바 왕궁(폴란드)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2020년 7월 1일, 폴란드는 2021년 2월 15일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비셰그라드 그룹(Visehrad Group, V4)의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비즈니스, 정치, 교육, 여행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잡아 왔다는 점에서 금년은 더욱 뜻 깊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결성된 4개국 파트너십은 굳건한 토대 위에서 지역 협력을 위한 최상의 모델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2021년은, 특별히 이곳 대한민국에서 V4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개 회원국은 한국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 정치, 문화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V4는 개별 혹은 그룹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에겐 영원히 기억 될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Covid-19 팬데믹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한 모범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가 몰고 온 피해를 견뎌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V4의장직을 맡으면서 "Back on Track (정상으로 돌아가자)"이라는 모토로 야심 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바이러스가 물러난 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차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V4는 글로벌 상황과 지역적 상황이 모두 정상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글로벌 경제 복구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V4는 한국민 여러분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주한 폴란드 대사관

피오토르 오스타세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친애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 비셰그라드 그룹, V4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4개국으로 이루어진 비셰그라드 연합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고 발전된 지역 협력 형태 중 하나입니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수직·수평적 발전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관계하는 분야는 다양하며 외무, 국방, 운송, 에너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셰그라드 국가는 정상회담과 의회 협력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타국가들과의 확장된 협력을 위한 '비셰그라드 플러스' 포맷을 오랫동안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비셰그라드 회원국과 제3국가 간의 주요한 정치·경제 이슈를 다루며 각국의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유럽-대서양 기구들에 통합되기 시작한 해는 2004년으로 비셰그라드 회원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슬로바키아가 NATO의 일원이 된 해입니다. 이를 통해 4개국 외교정책에는 질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 협력 기구인 비셰그라드그룹은 EU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고 회원국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셰그라드 회원국은 이 같은 조율을 통해 EU안에서 각자의 어젠다를 진작하고 유럽연합의 동유럽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 디지털 시대 통합정책, 인프라, 상호연결성 및 협력을 위한 지원 등 이해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대립보다는 협력을,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의 접근 방식을, 그리고 이웃과의 우정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V4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을 빌며,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



Velvyslanectví České republiky
Embassy of the Czech Republic
주한 체코 공화국 대사관



페스트에서 본 부다성 (헝가리)



HUNGARY

중부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몰락 후, 1991년에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서 자체적인 협력을 위하여 헝가리 비셰그라드 지역에서 비셰그라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력은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1335년 당시 헝가리의 로베르트 카로이 왕은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비셰그라드 성으로 폴란드의 카즈미에쉬 3세와 체코의 얀 룩셈부르크 왕을 초대하여 서로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경제적, 정치적 합의를 목적으로 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헝가리 수도에서 약 40km정도 떨어진 비셰그라드는 다뉴브 강가 언덕에 위치해 있는 중세의 성으로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이로 인해 중부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본 협력의 갱신은 1991년 요제프 안탈 헝가리 총리,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 대통령 그리고 체코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의 합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및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했으며 새로운 체제 내에서도 협력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으로서, 중부 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서 함께 행동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헝가리는 그림 같은 풍광을 지닌 비셰그라드 성이 이 협력의 명칭이자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한때 우리의 선대 왕들이 만났던 다뉴브 강의 유적지에서 중세 문화 유산을 직접 보고 감회를 느끼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비셰그라드 협력의 증거로 폴란드 LOT 항공의 직항을 이용하여 환승없이 한국에서 헝가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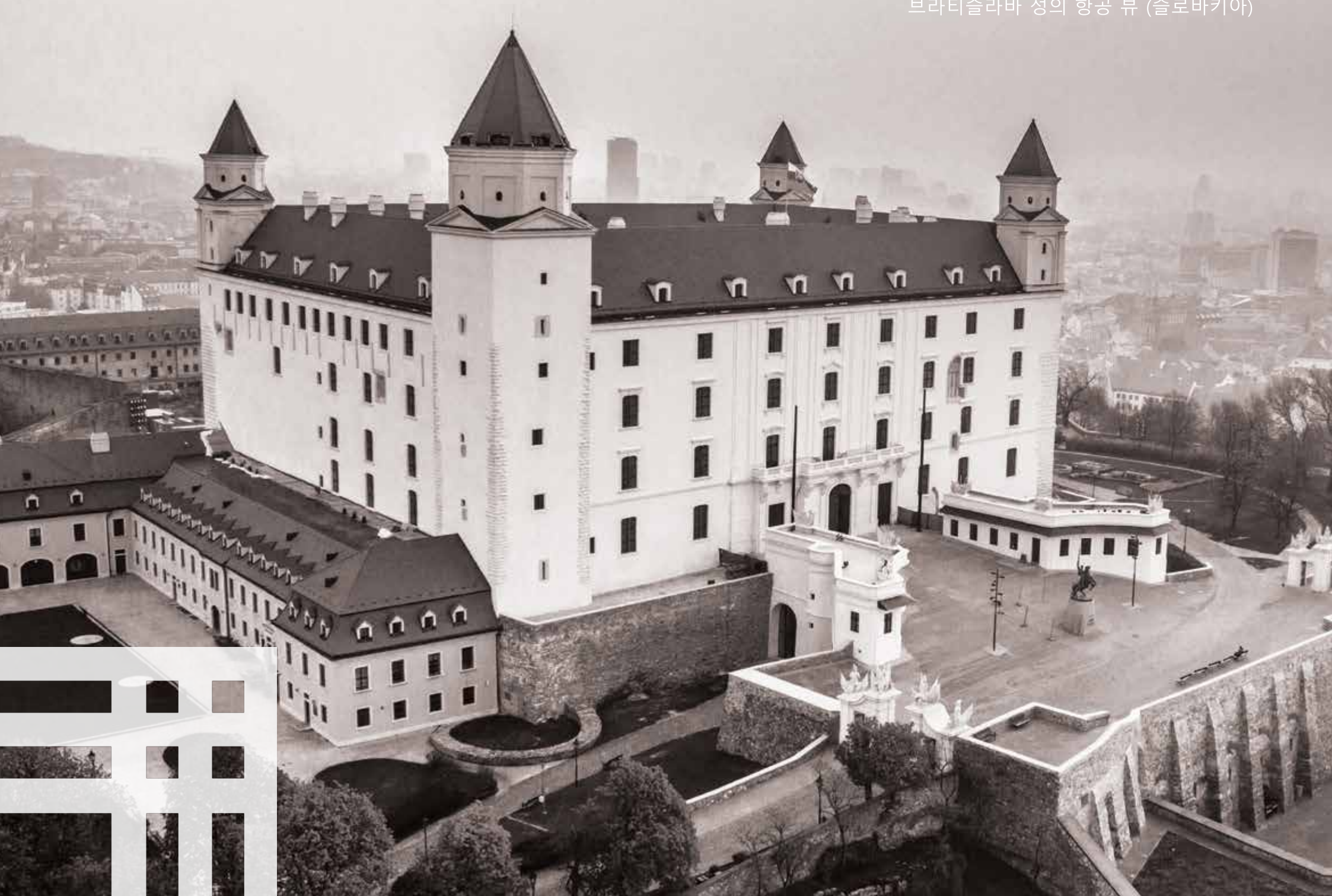
초머 모세 (Dr. Csoma Mózes)

주한 헝가리 대사


EMBASSY OF HUNGARY IN SEOUL
주한 헝가리 대사관



브라티슬라바 성의 항공 뷰 (슬로바키아)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비셰그라드(Visegrad)는 유럽 대륙 심장부에 위치한 4개국이 결성한 지역 연합체로 오늘로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럽은 평화보다는 유혈 투쟁이 훨씬 많았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바로 유럽에서 발발했고 그로 인해 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우리 4개국 영토 역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간 크기의 우리 4개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잠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공통의 이해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연대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두 유럽의 전 역사를 경험했고 이웃으로서 삶의 터전을 함께 일구어왔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유럽-대서양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통해 서로간 차이에 대한 존중과 상호 지식공유, 신뢰와 우정에 기초한 긴밀한 협력만이 유럽 내 평화 공존을 위한 최상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기본적으로 정치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30년 세월 동안 교육과 문화, 과학, 환경, 조직범죄 척결, 지역 개발, 운송, 관광,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유럽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쿠데르야비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비셰그라드그룹 개요 – V4이념

A few words about the Visegrad Group – V4 ideas

V4그룹의 지난 30년간 상호 협력과 지원은 중부유럽의 공산주의 몰락, 이후 혼돈의 정치·경제 전환기, EU, NATO가입, 중유럽과 EU국제 관계를 위한 능동적 역할 등을 거치며 짧지 않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폴란드가 그룹 의장국을 맡은 가운데 V4 창립 30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V4그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V4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그룹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이들로 구성된 협력·협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셰그라드는 헝가리 도시명에서 가져왔습니다. V4는 광범위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중유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중요한 틀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유럽지역협업체로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설 시기는 언제입니까?

1991년 2월 15일입니다.

비셰그라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세기, 정확히는 1335년과 1338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왕들이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두 번 회동을 했는데 이것이 그룹 명을 결정짓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비셰그라드성 (헝가리)

설립문서에 서명한 인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Lech Wałęsa),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헝가리 대통령 언털 요제프 (József Antall)가 관여하였습니다.

현재 4개 회원국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룹을 창설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시는 전환기였던 시기로 3개국 모두 과거 소비에트 위성국으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EU와 NATO에 가입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룹의 주 목적은 상호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80/90년대 전환기 관점에서 보아도 이들 V4국가들 모두 공산주의 이후 중유럽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경제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개국은 동일한 문화 유산과 가치를 공유하였는데, 특히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국 모두 EU와 NATO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1999년 3월 12일 NATO에 가입했고 슬로바키아는 2004년 3월 29일에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EU와 관련해서 V4회원국 모두 2004년 5월 1일에 가입했습니다.



비셰그라드 선언문 조인식. 사진: 공공 영역

V4가 협력하는 다른 공식적인 이니셔티브가 있습니까?

EU나 NATO 외에 V4그룹 회원국은 발틱해, 아드리아해, 흑해 3바다를 연결하는 12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치-경제 이니셔티브인 삼해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 회원국 모두 소지역 협력 기반의 중유럽 이니셔티브(Central European Initiative)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V4가 이룩한 정치적 성공에는 동유럽파트너십 참여와 서부 발칸 지역 국가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V4는 동방근린정책 (Eastern Neighbourhood) 과 EU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EU의 주요 어젠다로 확립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기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 국들과의 관계 외에도 EU동구권 파트너십 틀 안에서 북유럽장관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과 정기·비정기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V4의 주요 활동 무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V4국가들이 EU와 NATO에 모두 가입함으로써 큰 과제는 종결 되었는데 여기서 일차적으로 회원국은 V4와 다른 기구들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지만 중유럽 조직을 위한 대안 기구 설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유럽 전역에 민주적 가치를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V4의 지원인데 유럽의 안보 구조야말로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V4는 EU와 대서양 기구들 내에서 협력과 조정에 기여하고 이를 강화하자는데 완전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V4그룹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V4는 제도화된 기구는 아니며 총리 및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정기적 모임을 열고 있고 V4그룹 내 소위 정상간 회담을 연례/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현재 폴란드가 맡고 있는 의장직은 1년 임기로 순번제로 운영되며 행동계획(프로그램)을 수반합니다. 인터내셔널 비셰그라드 펀드(International Visegrad Fund)가 이 조직의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셰그라드 펀드'는 어떤 기구입니까?

V4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에 초점을 맞춘 V4 프로젝트로 2000년 6월에 설립되었고,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셰그라드 펀드의 주요 활동 영역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혁신, 지역 관점, 청소년 및 지속 가능 발전 기금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의 정체성, 지역 문화, 교육과 잠재성 구축, 혁신, 연구·개발, 기업가정신, 민주적 가치, 언론, 공공정책, 제도적 파트너십, 지역 개발, 관광, 환경, 사회개발 등 몇 가지 이론적 영역에 집중하는 프로젝트에 기금을 대고 있습니다.

V4그룹 내 문화적 유대감의 보전과 진작이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각 회원국은 문화, 교육, 과학 및 정보교류 분야에서 가치를 전파하고 개선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V4의 문화 협력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좋은 사례는 회원국 전문가들과 장관들이 대표로 모이는 상설 고위급 회담을 들 수 있습니다. 회담의 목적은 다양한 프로젝트 실현과 중유럽의 공동 문화유산 보전과 진작에 초점을 맞추는 공통된 문화정책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비셰그라드 펀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요?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강조하자면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워크숍 - 도서관 컬렉션 디지털 시스템과 관련한 바람직한 실행 재현 및 경험공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2. V4 문화유산 전문가 실무그룹 - 문화유산이 직면한 리스크와 잠재적 기회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두 개 프로젝트가 운영 중입니다
3. 후원 확장 전문가 실무그룹 - 중부 유럽 유산 포럼 프로젝트와 V4유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4. V4 회원국의 공연예술 협력 - PACE.V4 프로젝트는 특별히 프로페셔널 페어와 아트 페스티벌 등 공연예술 진작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의 선봉으로 2012년 서울 PAMS와 2013년 뉴욕 APAP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타깃이 아시아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비셰그라드 앤솔로지-V4 그룹의 모국어 및 영어로 출간된 회원국의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V4가 위치한 지역, 다시 말해 중유럽은 한국 비즈니스맨들뿐 아니라 관광객과 유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V4그룹은 이 지역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2002년 관광산업과 관련해 전체 회원국이 특별 조약에 서명하였고 각국 관광공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행정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슬로건인 중유럽 발견(Discovering Central Europe, DCE)프로그램은 한국을 주요 관광객 유치 관리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DCE는 현실적으론 일종의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Covid-19상황이니까요. 하지만 팬데믹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BACK ON TRACK)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결과물로 V4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겠죠?

동일한 가치와 전통을 공유하는 V4회원국은 예술, 건축, 종교, 민속, 자연환경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대표하며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는 누구나 아는 도시들입니다. 각국의 수도죠. 하지만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V4는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체로 매력적이고 훌륭한 관광 상품입니다. 뛰어난 기념물들 외에도, 종교 유산, UNESCO유산, 스파, 헬스, 농업관광, 진귀한 요리, 다양한 축제, 연극, 박물관, 전시회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매력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POLAND

Photo: M. Cieszewski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oland



피에니니 산맥의 가을 (폴란드)

Photo: M. Cieszewski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oland



Lubiąż의 시스테리안 수도원 (폴란드)

Photo: M. Cieszewski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oland



바르샤바 (폴란드)



HUNGARY



바질리카 지붕 (헝가리)



석양의 도나우강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체니 다리 (헝가리)



CZECHIA



체스키-크룸로프 역사지구, 1992. (체코)



클라드루비 나드 라벤의 의전용 말 훈련소, 2019. (체코)



쿠트나 호라 역사지구, 1995. (체코)



SLOVAKIA



슈피스 성 (슬로바키아)



타트라 산맥 (슬로바키아)



보이니체 성 (슬로바키아)



V4그룹 폴란드 의장직 – 제자리로 돌아가다 Polish Presidency in the V4 Group – BACK ON TRACK

2020/21년 폴란드는 V4그룹 의장직을 맡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V4는 1년 임기의 순번제 의장직을 채택하고 있고 7월 1일 시작해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회원국은 상대 회원국들에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데, 이니셔티브는 그룹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파트너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다(BACK ON TRACK) – 이는 V4의장직을 맡은 폴란드의 모토입니다. 특별히 이곳 한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1. 폴란드가 의장을 맡은 시점이 COVID-19 팬데믹이 야기한 유례없는 위기상황과 우연히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2. 팬데믹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역시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V4의 폴란드 의장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3. V4는 중유럽이 사회-경제 활동을 예전처럼 회복(back on track)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봉쇄나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간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가장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V4그룹 의장으로서 폴란드가 제공한 이니셔티브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3가지 주요 분야를 언급하겠습니다:

1. 경제와 연결성
2. 안보
3. 사회



Polish Presidency of the Visegrad Group
July 2020–June 2021

years of V4



이들 위해 아래와 같이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 강한 유럽 강한 V4 – 이는 유럽연합에서 V4회원국간 활동을 긴밀히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정상 복귀 – 이는 Covid-19 팬데믹과 그 후유증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을 의미합니다.
3. 인적 교류 및 접촉 – 이는 V4그룹, V4국가와 사회의 내부 통합과 단결 강화를 의미합니다.
4. 디지털 V4 (e-V4) – 이는 디지털 분야에서 V4협력·발전을 의미합니다.

주요 EU이슈 가운데 중유럽이니셔티브로 폴란드 의장 기간 중 V4가 특별히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 V4는 COVID-19 팬데믹 방역과 관련한 분야뿐 아니라 브렉시트, 상호예산계획(MFF), 결속정책 및 공동농업정책(CAP), 발칸 서부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EU확장 프로세스, 동유럽파트너십 개발 및 EU의 동유럽 주변국들과의 협력, 가뭄이나 수자원 고갈 같은 기후변화 문제, 바이오경제 및 순환경제 등 핵심 사안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2. V4협력을 위한 핵심 테마에는 디지털 어젠다, 디지털화, 혁신, 에너지와 연결성, 보건, 과학, 문화, 국방 및 안보도 포함될 것입니다.
3. V4의 대서양 협력을 위한 적극적 의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폴란드 의장직 수행은 V4와 EU, 대서양 협력을 연계하는 틀로 삼해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 하에서 지역 협력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4. V4는 안보협력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NATO 및 EU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 안들을 일관성 있게 개진해 나가는데 집중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5. EU확장 정책은 전개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유럽, 특히 중유럽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EU확장 프로세스에 대한 V4의 합의된 정치적 지원과 함께 서부 발칸 지역 국가들이 통합을 열망하고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베를린 프로세스(Berlin Process)에서 의장직을 맡았던 폴란드의 경험도 참조할 것입니다.
6. EU의 동부 근린은 V4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파트너십(EaP)지역에 대한 EU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V4폴란드 의장직 수행 목적은 V4의 활동과 프로젝트를 진작시켜 향후 EaP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폴란드 바도비체, V4 정상회담.
Photo: Tymon Markowski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oland

V4회원국 정보 개요

Some facts and figures about the V4 member states

V4그룹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533,627 km²이며 이중 폴란드가 가장 면적이 크고, 크기는 312,685 km², 헝가리가 93,030 km², 체코는 78,866 km², 슬로바키아가 49,035 km²입니다.

V4그룹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구는 64,292백만이며 폴란드가 대략 38백만, 체코는 10백만, 헝가리가 9,5백만, 슬로바키아가 5,5백만입니다.

V4그룹 일인당 GDP는 얼마입니까?

2019년 Eurostat자료에 따르면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헝가리가 13,260 USD, 슬로바키아가 15,860 USD, 체코가 18,330 USD, 폴란드가 13,000 USD입니다.

V4회원국 경제지표는 어떻습니까?

함께라면, 더 강합니다.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V4는 유럽에서 5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네 국가를 하나로 보면 세계 상위 22위, 유럽에서는 4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룹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국가이며 (약 3,800만 명) 체코(약 1,100만 명), 헝가리(약 1,000만 명), 슬로바키아(약 550만 명) 순서로 그 뒤를 따릅니다. 서유럽이 성장 둔화를 겪고 있지만 중부 유럽의 지역 경제 성장은 건재합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붕괴 이래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보다 V4그룹 회원국은 체제 변환과 개발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989년 이후 경제 전환과 시장 요구 조건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특별히 EU 및 공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경제 안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수년 간 외국자본투자자와 고학력 대비 저렴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화두였습니다. 현재 V4회원국은 선

택적으로 교육체계 투자는 물론이고 혁신뿐 아니라 성장세의 기술 진보와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력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혁신적이지만 예전만큼 낮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V4회원국은 모두 경기침체의 위협을 피했습니다. Covid-19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현재는 모든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간 협력과 지속적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진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편으로 V4회원국은 항상 자신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V4와 한국 장관 회담 (슬로바키아)

V4회원국의 경제적 우선순위

Economic priorities of each member state of V4

Czechia

체코

전략적인 지리상 위치,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산업 전통, 합리적인 비용, 잘 발달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으로 체코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완벽한 기반을 갖추었다. 체코는 매출의 4분의 3을 수출하는 매우 개방된 경제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대상이다.

체코는 다른 경쟁국보다 더 많은 자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지난 20년간 체코의 연구 개발 투자액은 GDP의 0.95%에서 1.93%으로 증가했다. 파나소닉, 허니웰, 메르세데스 벤츠, 모토로라, 록웰 오토메이션과 비스티온을 비롯한 많은 다국적 기업의 R&D, 디자인 센터가 체코에 자리해있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폴라로그래피(노벨상 수상 질적 분석 측정법), 항에이즈 바이러스 약물 시토포버(Vistide®)와 테노포버(Viread®)와 같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발명품과 특허권 뒤에는 체코과학자들의 노력이있었다. 민간 항공은 체코의 뛰어난 산업 부문으로 세계 항공 우주 공급망에서 체코는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가 되었다. 훌륭한 공학 기술 백그라운드, 우수한 R&D 시설, 숙련된 노동력, 정부의 지원, 뛰어난 제품 평판,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높은 제품 신뢰성의 조합으로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특유의 고품질 항공 우주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Hungary

헝가리

헝가리의 경제는 전문가 주도 경제이자 개방 경제로, 외부 경제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2013년부터 헝가리 경제는 더욱 견고하고 균형 잡힌 성장 구조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후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헝가리 경제 성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헝가리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헝가리의 경제는 유럽에서 본보기로 여겨진다.

헝가리 정부는 산업 발전과 생산 능력 신장, 자금 지출 가속화, 대출 활성화, 유연한 노동력 시장 조성 및 주택 건설 촉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가능한 한 경쟁력 있게 대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고 국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안건이다. 산업재생애 추진을 위해 헝가리 경제, 특히 제조업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개발 프로젝트와 고용 증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Poland

폴란드

폴란드는 1990년 경제 개방을 실시한 이래로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08-09년 불경기 속에서도 폴란드 기업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폴란드 경제에서 전략적 부문은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BPO/SSC, 전자공학, 식품 가공, 생활 가전, IT이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는 1970억 달러의 해외 자본을 끌어 모으며 신뢰할 만한 국제 투자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면에서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유럽의 거물들을 능가했다. 이는 경제적 안정, 큰 규모의 내부 시장, 최고 수준으로 숙련된 전문가, 유리한 물류 포지션의 조합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폴란드에 진출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폴란드는 외국 투자자에게 매력 있는 대상이다. 지난 십 년 동안 폴란드는 비EU국가 외국인들의 EU 직접 투자 비율의 약 3%를 유지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십 년간 가격 경쟁력과 전문성 있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순위와 경제 자유 지표에서 폴란드 진척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2018년 폴란드 의회는 비즈니스 기대치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투자 지원법을 도입했다. 기업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폴란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단일 투자 지역을 구성했다. 폴란드는 숙련된 전문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의 조합으로 투자하기 매력적인 대상이 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동 시장으로 자리잡아왔다.

Slovakia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산업 부가가치 면에서 아일랜드와 체코의 뒤를 이어 EU내 상위 3위를 차지한다. (GDP의 28.9%) 슬로바키아는 EU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 용이성에서 상위 1위를 차지한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경제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 자동차 산업은 훌륭한 전통을 지녔다. 슬로바키아 경제의 원동력이자 지난 20년간 해외 직접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 전자공학 - 전자 및 전기 부품 산업(EECI)은 120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슬로바키아의 GDP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다. 총 제조 생산에서 EECI의 지분은 17%를 차지하며 74,000명의 인구가 EECI산업에 종사한다.
- ITC & SSC - 정보통신기술(ITC) 부문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견고한 위치에 있다. 슬로바키아에는 Eset, Sygic과 같은 훌륭한 국내 기업과 더불어 T-systems, Asseco, Accenture, Soitron 과 Atos 같은 외국계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있다.



V4그룹 회원국과 대한민국 Group members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V4회원국은 모두 대한민국과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먼저 스웨덴, 스위스와 함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의 회원국임을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해체 이후에도 폴란드는 여전히 이 기구의 멤버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V4를 수립했던 1991년도 당시에 각 국가들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19년은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헝가리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이었으며 2020년은 한국과 체코공화국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독립국가가 된 1993년부터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V4회원국 모두 한국과 30년간 외교관계를 수립해 왔다는 말씀이군요. V4와 한국간 경제관계는 어떻습니까?

협회로서 V4는 한국과 경제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반대인 경우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얻기 위해선 각국과의 관계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봐야 합니다.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 공동 개최 행사가 있나요?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상호 문화 교환을 증진하고 외국의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대구, 부산에서 “비셰그라드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목표는 문화로 양국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과 비셰그라드 그룹 협력 메커니즘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관계 진전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989년 중부 유럽 정변을 주제로 한 V4국가의 합작 사진전이 서울의 AAISP 갤러리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개회식에는 V4국가 공관장 –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 피오토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얀 쿠데르야비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 –들이 참여해 1989년 각국의 발전에 대한 짧은 강연을 펼쳤습니다.



비셰그라드 그룹 공동 전시회 (서울)



2015 비셰그라드 뮤직 페스티벌 (서울)

체코 소개

체코공화국이라고도 알려진 체코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이다. 수도는 프라하이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한 곳이다. 프라하의 역사 중심지인 구시가지는 중부 유럽의 이름 있는 중세 도시로, UNESCO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또 다른 인기 여행지는 역사 도시인 체스키쿠름로프라는 도시이다. 건축물들은 수 세기가 지났어도 대부분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의 레이아웃 또한 대단히 잘 보존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UNESCO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체코의 풍부한 역사 덕에 국토 전반에 걸쳐 수백 곳의 성과 문화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이 외에도 체코에는 체스키 라이와 같은 자연보호지역이나 슈마바, 크로코노셰 같은 경치가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데 아웃도어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이다. 체코는 온대성 해양 기후로 한국과 비슷하게 여름엔 덥고 겨울엔 눈이 온다. 글로벌 평화지수(GPI)에 따르면 체코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GDP와 기타 사회·정치 지수를 기준으로 체코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에 속한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에 속하며 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유럽연합에도 가입하였다. 하지만 아직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아 공식 통화인 체코 코루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V4회원국과 함께 NATO의 일원이다.

체코와 V4

1991년 설립 이후로 비셰그라드 그룹은 중부 유럽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대화와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유례를 찾기 힘든 V4 간 상호 신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공식적이며 다채널적인 접촉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실무 단계에서부터 고위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구축된 것이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체코는 중부 유럽의 안정과 연대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시민, NGO(비정부기구), 사업가, 기타 주체들 간의 구체적 협력을 통해 드러난 가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 관심사에 대해 공개적이며 편견 없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 관계를 심사숙고 한다. 체코는 EU의 중요 안건 중 비셰그라드의 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EU 파트너들, 특별히 중부 유럽과 서부 발칸 지역 국가 및 동부 지역 파트너십과 V4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체코는 비셰그라드 국가 간 결속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인터네셔널비셰그라드펀드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역에서 비셰그라드 협의체를 위한 훌륭한 소중하고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체코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포함시켜 중부 유럽 협력을 토대로 유럽 연합 내 V4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체코 -한국 협력

2020년 체코와 대한민국은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했다. 양국의 협력은 2015년 양자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공식적으로 확대되었다. 양국 간 협력은 관광, 과학, 교역, 투자, 문화, 사이버안보, 교육, 기술, 혁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양국 간 교역 또한 지난 15년간 7배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 체코 투자전략이 영향을 주었다. 현재 9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진출해 있다. 비EU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체코 제조업 분야에서 3위 안에 드는 중요한 해외 투자국이다. 양국의 대학과 연구센터 및 기업들 역시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학부가 개설되어 약 14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관련 학부로 해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체코 대학들과 긴밀히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과 체코 학생들은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을 이용해 상대방 국가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서울 주재 체코 대사관 외에도 체코는 한국에 세 곳 이상의 대표 기구를 두고 있는데 체코 문화원, 체코 투자 사무소, 체코 관광청 등이 있으며 이 기구들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체코 문화원은 전시회나 영화 상영, 연극, 무용, 음악 공연 같은 다양한 문화·교육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체코 투자 사무소는 비즈니스와 투자 지원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체코 관광청은 해외 방문객들에 체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1년에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이어 체코 고위 대표단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체코와 한국 간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드니체-발티체 문화경관, 1996. (체코)

헝가리 소개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헝가리는 아시아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헝가리 부족은 아시아에서부터 중앙 유럽까지 이동했고 한반도에는 고려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인 서기 1,000년 성 이슈트반 1세가 헝가리 기독교 국가를 중앙 유럽에 설립했다. 헝가리와 한국의 역사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두 국가 모두 15세기에 봉건 제도의 정점을 겪었다. 왕립 도서관의 코르비누스 문고(Bibliotheca Corviniana)로 유명한 헝가리 국왕 마차시 1세 (1458년~1490년 재위)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1418년~1450년 재위)과 비교할 수 있다. 헝가리어도 한글처럼 여러 차례 외세의 억압에 맞서기도 했으며 격동의 세기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

헝가리는 1,000년의 역사와 동서양 문화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땅이다. 한국의 서울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이 있다면 헝가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수도 부다페스트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다뉴브강이 있다. 헝가리는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로 땅 아래에는 원기를 회복해주는 온천이 흐르고 있다. 부다페스트는 훌륭한 문화와 웅장한 역사적 장소를 지닌 진정한 대도시이자 수도이다. 넘치는 생기로 계절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 준다. 탄성을 자아내는 건축물과 그림 같은 강의 경치로 유명하다. 헝가리는 온천수가 풍부해 축복받은 나라로 뛰어난 시설이 헝가리의 목욕 문화를 뒷받침해준다. 헝가리 서부 지방 Hévíz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이 있다. 이 온천의 물 온도는 79°F/26°C에서 절대 식지 않아 연중 언제라도 몸을 담글 수 있다. 헝가리 다양한 교외 지역에서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험이 준비되어 있다. 22,000km의 하이킹 코스, 4,200km의 사이클 코스, 14개의 골프 코스, 10개의 국립공원 등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해준다. 푸스타 보호 구역, 그레이트 플레인, 낭만적인 다뉴브강 줄기와 유서 깊은 장소들, 그리고 에게르(Eger)와 같은 바로크 양식 마을에는 해마다 관광객이 모여든다. 중앙 유럽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벨러톤 호수는 휴양 리조트로 손색이 없다. 다양한 화산암류 토양에 자리한 카르파티아 분지는 유럽 등지와 해외 와인 재배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고 고도가 높은 산은 없지만, 완만하고 험준한 경사를 고루 갖추어 고유의 온기로 와인을 생산한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헝가리 와인 토카이는 훌륭한 산미로 어느 때나 안성맞춤인 품격 있는 와인이다.

헝가리는 해외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출 중심의 시장 경제로 수출 경제면에서 세계 3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유럽과 동유럽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서 선두 국가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헝가리와 V4

비셰그라드 협의체의 뿌리는 헝가리 국왕 로베르트 카로이 (카로이 1세)와 보헤미아의 안 1세, 폴란드의 카즈미에쉬 3세가 헝가리 북부의 비셰그라드 성에서 회담을 가졌던 13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담을 통해서 중앙 유럽 연합은 전통을 확립했으며 냉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다졌다.

외교 관계에서 V4는 단순한 협의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셰그라드 협의체는 헝가리 외교 정책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헝가리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앙 유럽 국가들의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비전과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한다. EU가 여러 차례 위기를 마주한 시기에도 V4의 잠재력을 통해 중앙 유럽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는 V4가 EU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지역 협의체이자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구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한다.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가 핵심 경제의 주요 파트너가 되면서 지난 십 년간 정치적 권력 행사면에서, 그리고 EU내부와 그 이외의 국가 그룹 및 6천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인구를 갖춘 시장에서 막강한 경제력과 소비자 잠재력을 나타내면서 비셰그라드 그룹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독일은 V4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헝가리의 경제 성장은 독일과 밀접한 관계에서 기인한 바가 많다. 독일과 V4의 무역량 덕분에 전체적으로 V4국가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되었고 현재 비셰그라드 국가와 독일의 무역 거래량은 프랑스와 독일의 무역량보다 많다. 이는 독일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V4가 EU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비셰그라드 협의체는 매년 돌아가며 대표를 맡는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폴란드가 대표를 맡고있는 기간에 비셰그라드 그룹은 30주년을 맞이한다. V4공동의 전통과 역사, 정체성으로 단결하여 변함없는 결속력을 보여준다. 2021년 7월부터는 헝가리가 V4대표를 이어받는다. 헝가리는 V4동맹을 도모하고 최선을 다하여 V4 프레지덴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반영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V4국가와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헝가리는 팬데믹에 맞서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에 V4협력국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힘겨운 시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전 세계의 외부 파트너들과 비공식적 토대 내에서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이익을 최대도 도모하기 위해 소위 “V4+” 편대를 구성했다. 유럽국가(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와 비 유럽국가(미국, 일본, 터키, 한국, 이스라엘, 호주) 외 다른 국가들(북발틱8국, 베네룩스)과 함께 V4+협의체를 설립했다. 이제 이러한 포맷을 통해 총 50여개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오늘날 비셰그라드 그룹의 외교 정

책은 동방 파트너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과 서부 발칸 국가(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와 굳건한 협력 관계가 중점이다. V4국가는 동방 파트너십 국가와 특별 친선 기회를 발족했으며 헝가리는 V4 연대에 대한 증표로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에 25만 유로의 기금을 비례적이고 빠르게 효율적인 순서로 분배하고자 한다. 이는 방역 장비 구매에도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V4동유럽 연대(V4 East Solidarity)'로 현재 시행 중이다.

공통된 역사적 과거와 유산으로 V4국가들의 곳곳에서 문화를 포함하여 많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비셰그라드 그룹의 우선 순위는 더 나은 지식과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촉진과 양성이다. V4는 각 국가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며 사회적, 문화적 결속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헝가리와 한국의 관계

헝가리는 1892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당시 조선왕조와 국교를 수립했다. 당시부터 일부 헝가리 여행자들은 한반도를 왕래했으며 그 중 한 명이 고종 황제와 직접 담소를 나눌 기회를 가졌던 매우 유명한 선교사 피테르 바이(1863-1948)다. 헝가리는 1989년 2월 1일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냉전시대 이후 중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이는 노태우 정권의 소위 '북방정책'과 독립적인 헝가리의 외교 정책이 이룬 공동의 결과였다.

오늘날의 양국 관계는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헝가리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이 외국 투자자로 환영받고 있다. 2019년, 한국은 25억 유로의 기록을 경신한 최대 투자자였다. 이러한 중요 기업들과 함께 헝가리는 중앙 유럽에 최대 EV 배터리 제조 능력을 구축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헝가리와 한국의 국교 30주년을 맞아 2019년 최초로 한국-헝가리 친선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먼 두 국가 간 역사적 관계를 맺었던 당시 재임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Introducing Poland

폴란드 소개

폴란드는 중앙 유럽에 자리한 면적 312,696km²의 국가이다. 인구는 약 3,850만 명으로 EU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다. 그 외 주요 도시로는 크라쿠프, 우치, 브로츠와프, 포즈난, 그단스크, 슈체친이 있다. 폴란드는 발트해부터 타트라산맥과 워미아까지 늘어져 있으며 천개의 호수의 땅이라 불리는 마주리아가 있다. 서쪽으로는 오데르강을 따라 독일과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의 산을 국경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동쪽으로는 아름다운 경관을 국경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와 접해있다. 러시아의 작은 연방 주 칼리닌그라드 또한 폴란드의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폴란드는 1999년 NATO에 가입했으며 2004년 EU에 가입했다. 폴란드는 쉥겐 지역, UN, NATO, OECD, 3개 바다 이니셔티브의 회원국이다.

폴란드에는 아래와 같이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다 : 마리아 스워드포스카-퀴리(1903년 물리학상, 1911년 화학상), 헨릭 시엔키에비츠(1905년 문학상), 브와디스와프 레이몬트(1924년 문학상), 체스와프 미워시(1980년 문학상), 레흐 바웬사(1983년 평화상), 비스와바 씬보르스카(1996년 문학상), 올라 토카르츠크(2018년 문학상) 다섯 개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폴란드는 문학과 시의 나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열다섯개의 문화유산과 한 개의 자연 유산으로 총 열여섯 개의 유산이 등재되었다. 더불어 네 가지 유산이 목록 등재를 위해 심사 중에 있다.

폴란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국제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 처럼 폴란드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성과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규모가 큰 국내 시장 때문에 관심이 모여들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폴란드는 중앙 유럽과 동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대륙 전반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경제가 불안정한 이 시기에 안전한 폴란드에 흔쾌히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폴란드의 환대와 친절함, 폴란드의 문화적 유산과 국가의 자연경관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3,800만명 인구의 굳건한 폴란드 소비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주요 통신로가 교차하는 유럽의 중앙이라는 국가의 유리한 위치 덕분에 전 유럽 국가에 5억에 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다. 폴란드의 주요 무역 상대는 독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스페인이다.

폴란드에는 많은 관광지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다. 다양한 경관과 천혜의 자연, 해양 스포츠부터 레이크 세일링, 스키, 등산까지 광범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전세계의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폴란드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역사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관광 기회가 금상첨화를 이룬다.

폴란드와 V4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문화적, 지적 가치를 공유해왔으며 다양한 지역적 전통 속에서 공통된 뿌리를 지닌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1991년 창설되었지만 국가 간 협의가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주로 대통령, 총리, 외교부 장관과 같이 다양한 정치적 수준에서 정기 회의의 일환으로 회담이 진행되었다.

2020년 7월, V4의 외무 장관이 폴란드의 바도비체에서 만났다. 폴란드 대표의 재위 기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장관급 회의로 각 국가의 장관은 비셰그라드 그룹이 지속해서 중앙 유럽의 이익에 공헌하고 V4회원국의 정책적 협력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한 전례없는 시기에 비셰그라드 그룹의 대표를 맡은 폴란드는 중앙 유럽 지역 및 유럽 연합 전체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

1989년 11월 1일 국교 수립 이래로 폴란드와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같이 공유되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긴밀하고 강력한 정치적 대화를 유지해오던 양국은 마침내 2013년 10월 폴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선언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경제적 관계, 국제 포럼과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폴란드는 1995년부터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일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날카롭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초기에 폴란드 391명의 폴란드 군인을 판문점의 북측 폴란드 캠프에 배치했다. 폴란드가 본부를 떠나야 했던 1995년 이후 폴란드의 파견 군대는 연중 4회씩 스웨덴과 스위스의 임무에 합류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은 청년 교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체결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16년 폴란드 항공이 바르샤바와 서울 간 직항을 출항하여 2018년에는 4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등 폴란드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주요 공항인 인천 국제 공항이 전략적 고문으로 폴란드의 중앙 통신 포트(CPK)를 선정했다. CPK는 바르샤바 서부에서 37km 떨어진 3,000헥타르의 부지에 자리잡은 바르샤바와 우치 도시 중심 사이에 계획된 환승 허브로 항공, 철도, 육로 운송을 통합한다. 연간 4천 5백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폴란드와 한국 두 국가에게 교역은 비즈니스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폴란드는 한국의 유럽 연합 무역 파트너 상위 10개국 목록에 올랐으며 동시에 최대 수출 상대 국가 15개국에 속하기도 한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제품에는 기계 장비, 전기 전자 장비, 건축 재료, 도자기 및 유리, 산업용 화학 제품이 있다. 한국에서 폴란드로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제품으로는 기계 장비, 전기 전자 장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용품이 있다.

현재 폴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260여 개의 한국 기업 덕분에 한국은 폴란드 내 가장 큰 비 유럽연합 투자국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과 폴란드가 다양한 문화와 다른 시차를 가진 거리가 먼 두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가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온다.



 **Plastic and metal part stream / machine construction**

LG Chem Poland
 Posco – PWPC
 Dongsung Poland
 Deerfos Europe
 Yushin Precision Industrial
 Erae Poland
 Starion Wroclaw/Starion Poland
 ST Automotive
 Dong Yang Electronics
 Mudeung Electronics
 KET Poland
 Seoyon Ehwa/Seoyon Elec./Koam
 Sekonix Poland
 Dongil
 Ace Rico
 ILP
 KCP
 Nara Battery Engineering
 Fine Altech
 Nifko Korea Poland
 Dongseo Display
 Dongshin Mo Tech
 BMC Poland
 Derkwo Electronics



 **Automotive related**

LG Chem Wroclaw Energy
 Mando Corporation
 SK Innovation
 LS EV Poland
 Woobo Tech
 S&T Motiv
 Daewon Europe
 LT Precision
 Humax

 **Electronics**

LG Electronics Wroclaw
 Samsung Electronics Poland Manf.
 LS Cable & System Poland
 Sam Dong Europe
 Samwha Poland
 Kyungshin Cable

 **Displays**

LG Electronics Mlaw
 LG Display
 Heesung Electronics
 SKC Hi-Tech and Marketing

 **Chemical and rubber industry**

MCNS Polyurethanes Europe
 Able Cosmetics
 DK Sungshin
 Dong-A Hwasung
 Enchem Poland
 Foonsung
 Hanhwa Q Cells

 **Logistics and Service**

Pantos
 Samsung SDS
 Serveone MRO
 LS Mtron Poland
 Hanjin
 Air Container
 Adampol (Hyundai Glovis)

 **Construction**

S&I
 Samsung Heavy
 Industry
 Posco E&C
 GS E&C

 **Financial**

Industrial Bank of Korea
 Shinhan Bank
 Woori Bank

 **R&D and IT**

Samsung R&D
 LG CNS
 KT Corporation

출처: www.paih.gov.pl>files Poland Land of Opportunities

Introducing Slovakia

슬로바키아 소개

슬로바키아는 지리적으로 유럽대륙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구수는 약 500만명이다. 상대적으로 영토는 작지만 서유럽과 동유럽의 문화, 종교와 같은 부분에 영향력이 남아 있으며 지역들이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다뉴브 로우랜드에서 중부유럽의 하이랜드까지 가는데 불과 두세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잔잔한 수역 주위로는 험난한 강 급류들이 자리잡고 있다. 잠시 밀집된 도심 지역을 벗어나 자연으로 둘러싸인 낭만적인 고속도로로 들어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겨울스포츠 팬이라면 편리한 스키 리조트와 기타 시설들, 그리고 자연 풍광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정신 없이 사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긴장된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슬로바키아 도처의 스파를 즐기는 것도 원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스파에는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인구당 성(城)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성(石城) 가운데 하나가 Spiš인데 이 성은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브라티슬라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물 중 하나가 브라티슬라바 성이며 고딕스타일의 성 마틴 대성당은 268년간 합스부르크가문의 왕과 여왕 18명의 대관식이 열린 유서 깊은 장소이다.

슬로바키아는 젊고 진취적인 나라다. 독립 이후 30년간 매일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슬로바키아다. 인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첨단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매일 신생 기업들이 탄생하며 새로운 오브제나 도시의 랜드마크가 등장하고 생활조건은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 가치 또한 지켜나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까다로운 국제 사회는 슬로바키아 출신을 높이 평가한다. 슬로바키아인들이 기술에 능하고 다재 다능한 능력으로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뿐 아니라 성공적이며 혁신적인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 문화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슬로바키아 출신의 유명인이 적지 않다. 세계를 뒤흔든 발명품은 요제프 막시밀리안 페츠발(사진에서 대물렌즈 발명가), 요제프 무르가스(무선전신 발명가), 안 바힐(헬리콥터 발명가), 슈테판 바닉(낙하산 발명가), 아우렐 스토돌라(증기 및 가스터빈에 관한 이론 창시자), 이반 알렉산더 게팅(GPS 발명가) 등으로부터 발명되었다. 또 슬로바키아의 자랑인 앤디워홀은 팝아트 선구자로, 고향 메드질라보르체에 방문하면 그의 박물관이 있다.

투자 분야에서 슬로바키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전략적 요충지이고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며 복잡하지 않고 공정한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유연한 노동법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켜 국경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써 한 나라의 투자자는 상이한 국가들의 공급업체를 이용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자사 모델 생산지로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 폭스바겐(폭스바겐+아우디), 푸조-시트로엥, 기아가 일찍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했고 최근엔 재규어/랜드로버가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EU 산업정책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탄소 배출 저감을 지향하지만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EU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산업은 전기 이동성, 디지털화, 대체연료 사용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슬로바키아와 V4

첫 째_ 중유럽 정 중앙에 위치한 슬로바키아의 지리적 위치는 슬로바키아가 자연스럽게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 협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슬로바키아는 V4 중에는 유일하게 나머지 회원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브라티슬라바에는 V4 유일 상설기구인 인터내셔널 비셰그라드 펀드(IVF)가 있다.

둘 째_ 과거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면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 3개국도 여전히 V4를 바라보는 슬로바키아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독특하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때 브라티슬라바는 EU통합과정에서 다른 중부 유럽 국가들을 따라 잡는데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머지 V4국가들은 슬로바키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였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했다.

셋 째_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개국 모두 중앙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겪어야만 했고 30년간 체제 전환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공유하였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현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V4국가들은 EU의 절대 다수 서유럽 국가들보다 여전히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의 전체 교역량이 슬로바키아와 슬로바키아 최대 교역상대인 독일간 양자 무역량보다 높다는 사실은 V4회원국들이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슬로바키아가 V4에서 유일하게 유럽 공동 화폐인 유로화를 채택한 나라지만 유로화 사용이 슬로바키아의 대 V3 교역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간 무역은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간 무역보다 여전히 활발하며 '벨벳 분리'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체코 역시 슬로바키아에게는 두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으로 남아 있다. 폴란드와의 교역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나 러시아와의 양자간 무역보다 더 크다. 슬로바키아와 나머지 V4회원국들은 EU 경제모델인 독일/북유럽 접근법을 공유한다는 점 또한 강조해야 할 점이다.

넷째_ 슬로바키아는 비셰그라드 파트너들과 전통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어느 누구도 30여 년 넘게 이어온 협력의 경험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엔 공동 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V4국가들이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된 입장(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은 V4회원국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V4에서 영토가 가장 작지만 이런 프로세스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섯째_ 수많은 EU관련 이슈에 대해 V4국가들은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는 EU차원에서 V4의 지역 포맷을 통해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 V4회원국은 결속정책과 EU에서 해당 정책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유럽 프로젝트에 관해 의견이 같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식품 이중 품질 방지(dual food quality)에서 보았듯 EU와 2급 멤버십에 어떤 경계도 새로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편으로 EU 확장 정책을 지지하고 서부 발칸 지역의 EU 참여를 주장한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동구권 차원의 유럽근린정책뿐 아니라 동부지역 파트너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일련의 목록들에 안보, 국방, 에너지, 기후정책, 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이 빠질 수는 없다.

슬로바키아 - 한국 협력

슬로바키아와 한국간 양자 관계에서 경제협력은 핵심 요소다. 슬로바키아에는 대략 10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투자액은 최대 30억 유로에 달하며 슬로바키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2019년 양자간 총 무역액은 46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 중 한국에서 슬로바키아로의 수출은 42억 유로였다. 현재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 기업군에 속해 있다. 기아는 전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다양한 소형차 모델(시드, 스포츠웨건, 프로시드, 엑스시드, 스포티지; 대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집중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은 전자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양국간 우호 관계는 빈번한 고위 정치 지도자 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4월에는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했으며 2018-2019년에도 슬로바키아 장관들이 한국을 찾았다. 한편, 한국 외무장관은 2019년 6월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해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을 만나 V4+한국 회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2019년 9월엔 한국 국회의장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슬로바키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자간 협력각서 틀 안에서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주한 폴란드 대사관

주한 폴란드 대사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20-1, 우 03062

www.gov.pl/web/hanguk

www.facebook.com/PolishEmbassyinSeoul

Twitter: PLinSouthKorea

email: seul.amb.sekretariat@msz.gov.pl